

도시(핵심12) 생활 속 특색있는 녹색 탄소 흡수원 확충

1. 현황 및 필요성

- 미세먼지·폭염 등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, 도시 생활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녹색숲의 기능이 부각
- 생활권 주변 다양한 공간에 도시기후환경 개선을 위한 그린 인프라를 구축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기여

2. 추진방향

- 기 간 : '22. 7. ~ '23. 12.
- 대 상 : 가로공간, 공원, 녹지, 유휴토지 등
- 내 용 : 도시바람길 숲 조성, 녹지 한평 늘리기, 힐링정원 조성 등
- 사 업 비 : 4,000백만원 (국비 50%, 시비 50%)

3. 기대효과

-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기여
- 도심속 허파 역할을 할 숲 확충과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 유입으로 탄소중립 실현은 물론, 대기정화 등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

✓ (산림청 자료) 도시숲의 미세먼지 저감 및 기후조절 효과

○ (미세먼지 저감 효과)

- 1ha의 숲은 연간 미세먼지 46kg을 포함한 대기오염 물질 168kg 흡착·흡수
- 도시숲의 부유먼지(PM₁₀)와 미세먼지(PM_{2.5})농도는 도심보다 낮음

○ (기후조절효과) 뜨거워진 도심속의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등 기후조절 기능

○ (소음감소 및 심리적 안정감 제공) 도시숲의 큰 나무들은 소음 10dB을 감소시켜 편안한 일상생활을 유지시켜 주며, 심리적 안정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함.

4. 소요예산

- 도시바람길 숲 조성 등 40억

5. 추진부서

- 공원녹지과